



확 달라진 SBS D 포럼, 11월 2일 열린다

할리우드 배우, 괴짜 수학자, 래퍼, 김창완 밴드 등 총출동

정치권력 부패에 목소리를 높였던 ‘촛불집회’,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미투 운동’, 경제 권력의 횡포에 대한 ‘갑질 폭로’.

이들 운동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개인’이다. 부조리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주체는 정치적인 집단이나 모임이 아닌, 개인이었다. 용기 있는 한 개인이 목소리를 냈더니 그에 공감하는 또 다른 개인들의 지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구습은 금이 가고, 새로운 사회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SBS의 대표적인 지식 나눔 프로젝트 ‘SBS D 포럼(SDF)’이 올해 선보일 주제는 ‘새로운 상식 개인이 바꾸는 세상’이다. 불합리한 관행을 깨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주제로 등장한 ‘개인’에 주목하자는 취지다. 이러한 개인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 제시하는 ‘새로운 상식’은 무엇이고, 어떻게 현실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그 메커니즘의 면면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구습 허문 국내외 인사들 총출동

이번 SDF는 오는 11월 2일(금)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개회식과 에필로그 외 총 5개의 챕터로 열린다. 프로그램과 연

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sdf.or.kr>)에 나와 있다.

첫 번째 챕터는 ‘연결된 개인이 바꾸는 세상, 어떻게 달라지고 있나?’라는 주제로, SBS가 대학 연구팀들과 함께 시민사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던 결과를 발표한다. 나머지 챕터에서는 사회 변혁을 위해 용기를 낸 국내외 연사들이 자신의 경험과 견해를 공유한다.

외국 연사 중에는 할리우드 배우이자 사회 활동가인 로즈 맥고완이 있다. 그녀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의 성폭력 피해를 처음 대중에게 폭로한 이후 거대한 ‘미투’ 물결을 일으킨 주인공 중 한 명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에는 미국 주간지 타임이 ‘침묵을 깬 사람들’ 중 한 명으로 그녀를 ‘올해의 인물’에 선정하기도 했다.

데이터 과학자이자 ‘대량살상 수학 무기’ 저자인 캐시 오닐도 주목해야 한다. 하버드대에서 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월스트리트 헤지펀드에서 데이터 분석 등을 하던 그녀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오히려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현실을 폭로해 세상을 놀라게 했다.

국내 연사로는 최영미 시인과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공동대표, 래퍼 키디비 등이 나와 각종 부조리에 맞서서 목소리

를 냈던 경험을 증언한다. 래퍼 빈첸과 국범군 쥐픽쳐스 대표는 10대와 20대 청춘을 대표하는 연사로 나와 이들 세대가 가진 상식을 우리 사회와 어떻게 연결 짓는가를 설명한다.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뮤지션 김창완 밴드는 음악과 토크를 전하며 SDF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확 달라진 SDF, 이름부터 다양한 의미 내포

올해 SDF는 지난 SDF와 여러 가지 면에서 확 달라졌다. 공식 명칭부터 ‘서울디지털포럼’에서 ‘SBS D 포럼’으로 바뀌었다. 주로 기술의 관점에서 미래를 조명하던 ‘서울디지털포럼’의 한계를 넘어서 기술과 사회를 아우르는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에 Diversity, Democracy, Data, Dream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한 ‘D 포럼’이라고 명명했다. 다만, 지난 10여 년간 진행해온 글로벌 포럼의 정통성을 이어가기 위해 SDF라는 명칭은 함께 쓰기로 했다.

기존 포럼 기간이 1~2일로 한정돼 일회성에 그친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SDF는 11월에 열리는 오프라인 포럼 외에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연중 제작하며 지속적인 형태의 포럼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



로즈 맥고완



캐시 오닐



최영미 시인



박창진 대한항공직원연대 공동대표



래퍼 키디비



래퍼 빈첸



국범군 쥐픽쳐스 대표



김창완 밴드

‘SBS 슈퍼콘서트’ 국내외 대표 공연 브랜드로 우뚝 서다

최정상급 출연진×연출력 ‘SBS 슈퍼콘서트 in 수원’, 3만 8천여 관객 뜨거운 호응

‘SBS 슈퍼콘서트 in 수원’이 10월 14일(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3만 8천여 관객이 객석을 메운 가운데 성공적으로 펼쳐졌다.

‘SBS 슈퍼콘서트 in 수원’은 지난 7월 대만에서 개최한 글로벌 콘서트 ‘SBS 슈퍼콘서트 in 타이베이’에 이어 SBS가 두 번째로 기획한 대형 콘서트로, K-POP 대표 정상급 아티스트 총 12팀이 참여해 폭발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이날 콘서트는 장예원 아나운서와 세븐틴의 민규가 메인 진행을 맡았으며, 아이콘의 B.I, 아스트로 차은우 등 출연진이 함께 보조 MC로 나서 눈길을 끌었다. 모모랜드의 상금 발랄한 무대를 시작으로, 파워풀한 NCT 127, 가창력이 돋보이는 마마무가 공연장의 열기를 더했으며, 유일한 발라드 가수인 황치열은 가을밤에 어울리는 감성적인 무대로 팬들의 환호를 불러일으켰다.

이어 여성미 넘치는 EXID, 보이그룹 아스트로와 아이콘이 차례로 나왔으며, 걸크러시의 대명사 블랙핑크와 한류의 새로

운 아이콘 뉴이스트W, 상큼한 매력의 레드벨벳이 무대를 장식했다. 마지막으로는 글로벌 팬덤이 막강한 워너원이 무대에 등장해 ‘에너제틱’ 등 대표곡 4곡을 선보여 팬들에게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번 공연은 가수들이 ‘랜덤 액션’ 혹은 ‘랜덤 댄스’를 선보이는 팬 서비스 이벤트를 추가해 팬들과 함께 공감하고 호흡하는 콘서트 문화를 조성했다는 호평을 받았으며, 클로징 무대에서는 환상적인 불꽃놀이로 가을밤 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아 인상적인 연출을 보여줬다. SBS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SBS 슈퍼콘서트’를 국내외 대표적 공연 브랜드로 각인시켰으며, 향후 K-POP 열풍을 확산하는 공연 문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청취자에게 한 발 더 가까이, SBS 파워FM ‘여기 콘서트’

〈두시탈출 컬투쇼〉, 〈봄봄파워〉 신촌 스타광장에서 생방송

SBS 파워FM(107.7MHz)이 ‘여기 콘서트’를 통해 청취자에게 한걸음 더 다가갔다.

10월 16일(화), SBS 파워FM ‘여기 콘서트’가 신촌 스타광장에서 펼쳐졌다. ‘여기 콘서트’는 SBS 파워FM의 대표 프로그램들이 거리로 나가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생방송이다. 3회째를 맞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두시탈출 컬투쇼〉(14:00~16:00)와 〈봄봄파워〉(16:00~18:00)가 오가는 시민들, 애청취자들과 함께했다.

첫 주자로 나선 〈두시탈출 컬투쇼〉의 DJ 김태균은 특유의 입담으로 현장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고 게스트로 나온 휘성, 청하, (여자)아이들, 느와르는 2시간을 풍성하게 채웠다. 또 요즘 대세로 떠오른 개그맨 박성광이 스페셜 DJ로 출현해 관중들의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어 〈봄봄파워〉의 DJ 봄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DJ 봄은 자신의 노래를 열창해 분위기를 고조시킨 후 방송 내내 노래에 맞춰 립싱크를 하거나 춤을 추며 활기찬 에너지를 발산했다. 여기에 오마이걸, 노라조, 개그맨 윤성호의 공연이 더해져 현장은 흥으로 가득 찼다.

이날 ‘여기 콘서트’는 관람객이 참여할 수 있는 색다른 소통의 장을 만들어내 열띤 호응을 얻었다. 현장 출장 생방송 ‘여기 콘서트’는 SBS 라디오 홈페이지와 인터넷 라디오 고릴라를 통해 다시 보고 들을 수 있다.

세계 최초! AI 이용한 ‘UHD 방송 클립 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인기 드라마나 예능의 재미있는 부분만 뽑아낸 하이라이트 클립 유통 서비스도 인공 지능 기술을 통해서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인공지능 클립 생성 시스템인 ACES(Artificial Intelligence Clip Export System)의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UHD 방송 전자 안내(A-ESG: Advanced Electronic Service Guide)에 도입한 ‘딥러닝 기반 UHD 방송 클립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UHD 방송 A-ESG는 방송 일정 안내와 함께 방송 콘텐츠의 ‘하이라이트 클립’ 또한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비용과 시간 문제로 일부 방송 콘텐츠에 대해서만 하이라이트 클립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딥러닝 기반 UHD 방송 클립 서비스’는 이 과정을 ACES가 수행하게 함으로써, 제작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안정적인 품질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자사의 모든 방송 콘텐츠에 대하여 UHD 방송용 하이라이트 클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하였다.

‘ACES’는 미디어기술연구소(담당: 홍순기 박사)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으로, 수많은 방송본 영상과 해당 영상의 하이라이트 클립들과의 관계를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여 학습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에 기반한다. 따라서 기존 인식 기술(인물, 객체 등)보다 예측 정확도가 높다.

또한 해당 기술의 학습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국내 최초로 구축된 그룹 유통 인프라 시스템인 OPS(Online Publishing System)를 활용하고 있다. 이로부터 학습 데이터를 제공받아 학습하면서 진화한 알고리즘에 의해 생성된 클립들을 다시 유통함으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재미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였다.

미디어기술연구소는 ‘ACES’의 탁월한 영상 분석 및 예측 기능을 향후 제작 및 관리 효율화 업무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BSNOW 유튜브 계정 200만 구독자 돌파



SBS의 공식 유튜브(YouTube) 계정인 SBSNOW가 구독자 200만 명을 돌파했다.

SBSNOW 유튜브 계정은 올 하반기부터 최신 SBS 드라마와 예능, 시사교양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자체 제작한 기획물과 기존 SBS 명품 드라마와 시트콤을 다양하게 서비스하면서 매주 평균 2만 명의 국내외 구독자가 증가하며 성장하고 있다. SBSNOW는 200만 유튜브 돌파를 기념해 구독자들을 위한 이벤트도 실시한다. SBS의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SNS를 통해 진행되는 '스브스 명장면을 말해줘' 이벤트는 10월 22일(월)부터 11월 4일(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SBSNOW의 200만 돌파 축하 영상을 공유하고 유튜브를 구독한 후 다시 보고 싶은 SBS 명장면을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50명을 선정한다. 당첨자에게는 50만 원 하나투어 여행상품권, 여행 캐리어, 에어팟, 스타벅스 커피세트 기프트콘, POOQ 이용권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SBSNOW는 SBS의 SNS 공식 계정으로 유튜브, 트위터(@SBSNOW), 페이스북 등을 통해 SBS 대표 프로그램들의 영상 클립과 기획영상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다.

미래 방송환경 대비한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 2.0 완료



SBS 파워FM은 3년 반 넘게 채널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러브FM도 점차 채널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다. 라디오기술팀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기존의 라디오 환경을 넘어서 미래 방송 환경에 대비한 방송 시스템으로 전환을 모색했다.

10월 8일(월) 전면 개편된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다. 목동으로 이전한 지 15년 만에 AoIP(차세대 오디오 전송 방식)를 적용한 최신 오디오 콘솔이 등장했다. 음향과 영상 모니터도 교체되었고 제작자의 활동 공간도 넓어졌다.

또 라디오 스튜디오에 적합한 조명과 카메라 등의 영상제작 장비를 설치하여 상시 '보는 라디오'를 제작, 송출할 수 있게 되었다. 카메라를 켜면 TV가 되고 카메라를 끄면 라디오가 되는 것이다. 새로운 라디오 생방송 스튜디오는 무선(RF)뿐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등 가능한 모든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라디오기술팀 관계자는 "24시간 방송되는 매체 3개를 유지하면서 완성해야 해서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선을 다한 엔지니어들의 헌신과 불편함을 참고 기다려 준 라디오센터 제작자의 응원이 더해져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서바이벌로 톱 모델테이너 뽑는다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10월 5일(금) 목동 SBS방송센터 13층 SBS홀에서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MC인 서장훈을 비롯해 모델 멘토 장운주와 김원중, 연기와 엔터테이너 멘토 김수호와 써니 등이 참석했다. 양재영 PD는 "흥미진진한 서바이벌 요소를 도입해 기존 대회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서바이벌을 통해 어떤 대형 스타가 탄생할지 기대해달라"고 밝혔다.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은 10월 10일부터 11월 말 최종 결선 전까지 매주 수요일 밤 생생한 서바이벌의 현장을 전하고 있다. 1,600명의 예선 지원자들이 본선 진출 64명으로 추려지는 모습부터 멘토와 지원자들 간의 케미, 갈등, 혹평과 결과에 눈물 흘리는 모습 등 예비 톱 모델테이너들의 다사다난한 성장 스토리가 관심을 더하고 있다. 또 국민 심사위원제를 도입하여 방송연예 인기순위 제공 앱인 티비톡(www.tvtalk.tv)을 통해 시청자들의 실시간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슈퍼모델 2018 서바이벌'은 2달간의 불꽃 튀는 경쟁을 거쳐 11월 30일(금) 제주에서 최종 결선이 열린다. 최종 결선은 SBS와 JIBS 등으로 생중계된다.

SBS 스포츠

2018 프로야구 중계 시청률 1위 질주



SBS스포츠가 2018 KBO 리그 5개 중계방송사 중 시청률 왕위에 올랐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정규리그가 마무리 된 10월 14일까지 프로야구 평균 시청률은 SBS스포츠가 1.157%(이하 전국 유료가구 기준)로 5개 중계 방송사 중 가장 높다. 그 뒤로 MBC스포츠플러스 1.072%, SPOTV 0.992%, KBSN스포츠 0.966%, SPOTV2 0.681% 순이다.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에서도 SBS스포츠가 선두를 달렸다. SBS스포츠 <베이스볼 S>는 2018년 평균 시청률 0.603%(이하 본방송 기준)를 기록하여 2위 MBC스포츠 <베이스볼 투나잇 야>(0.587%)를 큰 차이로 제쳤다. KBSN스포츠 <아이 러브 베이스볼>은 0.469%이다.

최고시청률 중계 경기 면에서도 SBS스포츠는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SBS스포츠는 최고시청률 TOP 10 경기 중 6경기를 중계해 최강자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SBS스포츠는 이순철 해설위원 등의 세심하면서도 수준 높은 해설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으로 분석된다. 안경현, 이종열, 최원호 등 안정된 방송인으로 거듭난 선수 출신 해설위원의 해설과 정우영, 윤성호, 이동근 등 캐스터들의 박진감 넘치는 중계 역시 시청률 1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토다이 뷔페 음식 재사용’ 이달의 방송기자상



‘토다이 뷔페 음식 재사용’ 연속보도(시민 사회부 정다은)가 10월 5일(금) 한국방송 학회와 방송기자연합회가 주는 제11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을 받았다. ‘토다이 뷔페 음식 재사용’ 연속보도는 유명 뷔페 음식점의 전 지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음식 재사용 실태를 고발했고, 업체 측의

입장까지 균형감 있게 전달했다. 보도 이후 식약처는 전반적인 뷔페 음식 실태조사에 나섰고 뷔페 음식 위생지침을 만들어 배포했다. 또한 식약처는 새로운 뷔페 음식 위생지침에 맞게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SBS 창사 28주년 기념 오케스트라 공연, 사우 초청



10월 19일(금) SBS 창사 28주년 기념 공연이 잠실 롯데콘서트홀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지휘자 예사페카 살로넨이 이끄는 팔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15년 만에 내한하는 크리스티안 짐머만의 협연은 관객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큰 찬사를 받았다.

SBS는 임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함께 걸어온 창사 28년의 의미를 기념하기 위하여 올해 공연에도 사우들을 초청했다. 총 83명의 사우가 추첨에 응모하여 20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었다. 참석이 어려운 사우들 대신 3명의 사원이 추가 당첨되기도 했다. 공연을 관람한 20명의 사우들은 “완벽한 연주에 카리스마 있는 지휘였다”며 큰 만족과 기쁨을 전했다.

‘아이 낳고 싶은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식’ 개최



SBS 희망내일위원회는 육아정책연구소와 10월 22일(월) 목동 SBS방송센터 20층 대회의실에서 ‘아이 낳고 싶은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육아문화 개선 및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합의하기 위해 열렸다. 양 기관은 앞으로 <희망TV SBS> 등 SBS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협력, 육아정책연구소 연구과제에 대한 상호 협력,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제고 및 홍보 협력, 저출산 대책 관련 발표회, 포럼 등 상호 협력 및 콘텐츠 교류 등을 긴밀하게 펼쳐나가기로 했다. SBS 희망내일위원회 박정훈 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육아정책연구소와 SBS가 힘을 합쳐 아이를 키우고 싶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일조하고,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육아정책연구소 백선희 소장은 “출산, 육아 문제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육아정책연구소와 대중 상대 미디어로서 파급력이 있는 SBS가 힘을 합치면 큰 시너지가 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실 때 제일 뿌듯해요”
- 구내식당

목동뿐 아니라 등촌동, 일산제작센터에 이르기까지 SBS인들의 세 끼 식사는 (주)아워홈이 책임진다. 목동에는 점장 포함 영양사 3명과 조리사 3명, 배식을 담당하는 여사님들 22명이 근무한다. 입사 15년 차인 이우정 점장은 영양사가 메뉴를 짜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 컨펌하는 한편, 위생과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점포 운영을 총괄한다. 이우정 점장은 “대학 다닐 때는 메뉴만 잘 짜면 좋은 영양사가 되는 줄 알았다. 막상 현장에서 일해 보니 메뉴 짜는 것보다 감정 노동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식판을 집어 던지며 불만을 표시하는 고객도 본 적이 있다. SBS에서 일한 지는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여기 분들은 점장이서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오히려 저희 마음을 헤아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업계 1, 2위를 다투는 (주)아워홈에서도 한 끼 6,000원의 단가는 고단가의 식사에 속한다. 전경은 영양사는 “전에 일하던 곳은 단가가 3,500원이어서 메뉴 짜는 데 제약이 많았다. 여기서는 그동안 내고 싶었던 손 많이 가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낼 수 있어서 좋다”고 했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구내식당에도 영향을 미쳤다. 영양사 한 명이 추가되었고, 배식 담당 여사님들은 30분~1시간 단위로 탄력근무를 한다. 올 초 있었던 식단이 인상이 추가 인건

비로 다 나가는 건 아니냐고 묻자 이우정 점장은 “인원 총원은 최소화하는 대신 업무 분장과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정했기 때문에 식단가에서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건 아니다. 또 식당 설비는 SBS에서 해주었고, 고장 나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수용해주시기 때문에 설비비가 들지 않는다. 이제부터는 영양사의 몫이다. 같은 돈을 써도 정성 들여 메뉴를 개발하고 트렌드를 반영하면 고객만족도가 높은 음식이 나온다.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리사들도 조리가 끝나면 배식대로 나와 배식을 돕고 고객과 눈 맞춤하며 반응을 살핀다. 18년 차인 이성원 조리사실장은 “공장군은 노동 강도가 높다 보니 간이 센 것을 좋아한다. 반면에 언론사는 건강에 대한 의식이 높아서인지 저염식을 선호한다”고 말했다. 아워홈 소속인 영양사나 조리사는 길어야 3년 주기로 로테이션이 되는 반면에 여사님들은 지점에서 자체적으로 뽑기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많다. SBS에서 16년째 일하고 있다는 김상순 여사는 “누군가는 식사를 제공하는 작은 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정성들인 밥 한끼가 주는 힘을 알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식을 준비한다”고 말했다. 7년차 임옥하 여사는 “반찬을 더 달라고 하면서 쭈뼛거리는 사원도 있



는데 그럴 필요 없다.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고, 모자라면 또 만들면 된다. 사원들이 맛있게 잘 드시고 가실 때가 제일 뿌듯하다”고 말했다. 임옥하 여사는 또 “잡곡 밥통에서 밥을 푸면서 뒷사람을 위해 밥을 보기 좋게 모아 놓고 뚜껑을 덮는 여직원을 본 적이 있다. 아나운서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 보였다. 이 기회를 빌려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SBS는 방송사의 특성상 배식 시간이 길다. 일반 회사는 배식 시간이 한 시간 정도에 그치지만, SBS는 근무 특성상 끼니 당 두 시간씩 배식을 한다. 또 주말과 명절연휴에도 근무하는 사람이 많아 구내식당도 365일 하루도 쉴 틈 없이 새벽 6시부터 밤 8시까지 돌아가야 한다. 이우정 점장은 “어려운 점이 많지만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라는 따뜻한 인사, 또 구내식당 직원들을 한술밥 식구로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기에 힘을 내서 일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점장은 “추천메뉴나 개선점을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마쳤다.